

발해의 경제발전과정

전 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7세기말부터 10세기초까지 200여년간 존재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가 크게 발전하여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떨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181페이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7세기말부터 10세기초까지 200여년동안 존재하였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동방의 룡성한 나라로 이름을 떨치였다. 특히 발해의 경제는 강력한 주권국가의 위용을 떨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발해의 경제와 관련한 연구가 적지 않게 시도된것도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 시기의 역사책들에 발해의 경제와 관련한 자료들이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발해의 경제를 발전사적인 견지에서 밝히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발해의 경제발전과정이 잘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발해의 경제발전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 면모를 개괄해보려고 한다.

발해의 경제는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였다. 시기적으로 구분해보면 1단계는 7세기말부터 8세기초, 2단계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초, 3단계는 9세기초부터 9세기 말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 《구당서》 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을 비롯한 역사자료들에 발해의 경제발전단계를 구분한것이 없는 조건에서 매 왕들의 시호의 의미와 왕위의 교체과정, 수도건설과 령토의 확장을 비롯하여 경제의 발전과 련관된 자료, 대외관계와 관련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행한 연구성과들을 널리 참고하여 발전단계를 구분하였다.

발해의 경제는 7세기말~8세기초(1단계)에 자체의 경제적기초를 갖추어나가면서 서서히 발전하였다.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민들은 당나라침략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698년에 발해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발해가 건국을 선포하면서 경제분야의 담당관청들을 어떻게 편성하였는가를 전하는 자료는 없다. 《신당서》(권219 발해전)에 발해의 국가기구와 관련한 자료가 있으나 그것이 어느때에 세워진 국가기구인지는 알수 없다. 현재 건국 직후의 국가기구에 대하여 전하는 자료가 없고 있다면 관직에 대한 기록으로 두령, 대두령 등 일반적인 칭호와녕원장군랑장, 유격장군과위도위 등 무관벼슬이름 또는 그 벼슬 등급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몇개 있을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발해의 건국시기에 경제분야를 담당한 관청들이 없었다고 볼수 없다. 발해이후에 성립된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인 경우 국가성립을 선포하면서 경제담당 관청들을 포함하는 국가기구를 공포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당시 남쪽에 있던 신라와 발해의 서쪽에 있던 당나라도 국가기구안에

경제담당 관청들을 포함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조영을 비롯한 발해의 건국성원들이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나라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경제담당 관청들을 포함하는 국가기구를 내오고 관료들을 임명하는것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국가창건의 당면과제로 내세웠을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발해의 초대왕 대조영자신이 이전에 고구려의 장군이라는 무관직을 가지고있었으며 발해의 전신국가인 진국의 성립과 통치에 관여하였으므로 나라를 세우면서 경제담당 관청들을 포함하는 국가기구를 우선 설치하여 경제관리체제를 갖추었을것이다.

※ 선행연구에서 발해국의 3성 6부의 관제내용은 무왕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고착된 후에도 조금씩 변동이 있을수 있었고 또 제정된 관청이름, 벼슬이름들에는 여러가지 판 이름도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되었는데 이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적근거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세워진 경제부문을 담당한 관청들은 나라의 경제를 장악통제하였을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경제관리를 원만히 실현해나가는 기구로는 되지 못하였다.

1대왕인 대조영집권시기(698—719년)에 발해는 통치체제와 질서를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함으로써 경지면적의 확장에 큰 힘을 넣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농업생산도 별로 장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수공업과 상업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것이다.

2대왕인 무왕시기(719—737년)에 발해의 경제는 전 시기에 비해 발전하였다. 특히 농업과 수공업분야에서 발전이 이룩되었다. 726년 흑수말갈원정과 732—733년 당나라의 등주공격과 만리장성계선에로의 진출 그리고 발해가 남쪽으로 대동강—니하계선까지 영역을 차지한 사실은 그것을 밝힐수 있는 실머리를 안겨준다.

※ 《조선단대사》(발해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44페이지에서는 후기신라의 경덕왕때(742—765년)에 이르러 발해의 남쪽경계가 대동강—원산(세길동)까지였다고 써여있다.

이 자료에는 경제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지 않으나 그 근처에 발해의 경제를 론할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다.

당시 봉건국가의 통치층안에서 무관들이 압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므로 국가통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무왕과 관료구성에서 많은 수를 차지한 무관관료들은 국가의 경제를 국가방위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726년 발해는 흑수말갈원정을 통하여 흑수부를 자기의 지배하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패강(대동강)과 니하계선까지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결국 발해는 많은 백성들과 토지, 자연부원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객관적조건과 인민들의 창조적활동이 증대되면서 농업과 수공업생산은 장성하고 그 발전을 촉진시켰을것이다. 농업과 수공업생산의 장성은 이 시기에 진행된 여러차례의 원정에 참가한 군사들의 군량과 군마들의 먹이, 무기무장과 전함 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무기무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철을 비롯한 금속제련분야에서의 생산도 증대시켰다. 이 시기 경제의 모든 분야들에서 생산이 늘어났으나 기본은 당나라와 주변의 말

갈세력과의 전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형편에서 주로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는 생산분야들이 발전되었을것으로 본다.

발해는 8세기 중엽~9세기초(2단계)에 농업과 수공업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시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것은 발해인민들이였다. 한편 객관적으로는 발해의 3대 문왕이 집권한 후 국가관청들에 문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것과도 일정하게 관련되었다. 이 시기 발해의 역사를 전하는 자료들에 문관관료들의 활동이 주로 보이는것은 집권세력의 편성이 앞선 시기와는 달라졌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일반적으로 왕의 시호에는 해당 임금의 통치리념, 공적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다. 발해 2대왕을 무왕(武王)이라고 하고 3대왕을 문왕(文王)이라고 한것만 보아도 2대왕과 3대왕의 통치리념, 봉건국가의 통치시기가 군사를 중시한 시기와 학문을 중시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주변나라의 발해사연구자들은 문왕시기의 봉건통치를 문치(文治)－문관들에 의한 통치라고 평가하고 이 시기를 발해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시기로 보고있다.

726년과 732-733년에 진행된 대규모적인 대내외전쟁은 발해의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소모시켰다. 이러한 상태를 끝장내는것은 737년이후 발해국앞에 나선 절박한 요구였다. 발해는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적대관계에 있던 당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그에 따라 당나라도 737년에 무왕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그 기회에 두 나라사이의 평화적관계를 발전시킬것을 제기하였다. 그후에도 두 나라사이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한편 당나라의 국내형편은 점차 악화되어갔으며 755년 11월에는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나 당나라는 그를 수습하는데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었다.

발해는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경제발전에 큰 힘을 넣었다. 문왕통치시기에 경제담당 관청들을 비롯한 국가기구가 정비되었다. 이때의 국가기구는 《신당서》(권219 발해전)에 보이는것과 비슷하였을것이다. 그것은 발해의 3대 문왕시기에 활동한 관료들의 관직에 도독, 자사, 병서소정, 정당성 좌윤, 사빈소령 등이 나타나기때문이다. 정당성 좌윤은 6부를 총괄하는 최고행정기관인 정당성에서 높은 급의 관직이며 사빈소령은 사빈시의 소령이었다. 이것은 성(省), 시라고 불리우는 통치기구들이 문왕통치시기에 이미 설치되어있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당시 발해의 경제담당관청은 인부와 신부, 대농시와 사장시였다.

※ 정당성은 6부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위를 가지고 신부를 장악통제하였으므로 경제분야를 직접 담당한 관청으로는 볼수 없다.

인부에는 정사인 인부와 지사인 창부가 있었는데 인부는 토지, 호구 등을 창부는 조세, 창고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 신부에는 정사인 신부와 지사인 수부가 있었다. 신부는 봉건국가의 관청수공업 등을, 수부는 나라의 산림, 도로, 강하천의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관청들에는 해당하는 직제들이 있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8세기초에 나라의 경제를 담당한 관청들이 재정비된것은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발해의 봉건통치층은 토지와 호구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여 수탈대상들을 더 많이 확보하였으며 전세수탈량을 바로잡음으로써 봉건국가의 물질적부를 늘려나갔다.

발해가 8세기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도를 건설하였는데 그때 수도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보장할수 있는것은 발해의 국력, 발전된 경제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것만 보아도 발해의 경제발전이 상당한 높이에 있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창조적노력이 더욱 증대되었음을 알수 있다.

※ 발해는 742년에 동모산으로부터 중경(화룡 서고성자)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756년에는 중경으로부터 상경(녕안 발해진)으로, 785년에는 상경에서 동경으로, 794년에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옮기었다.

발해에서는 농업생산이 늘어났다. 농사와 관개에 유리한 지대에 수도가 자리잡은것은 농업이 증시되고 알곡생산량이 훨씬 늘어났으며 과일과 남새생산도 많아졌다고 생각된다.

수공업, 수산업, 상업도 발전하였다. 수공업은 관청수공업, 전업적수공업, 농촌가내수공업 등의 경리형태를 가지고 직조, 금속가공, 배무이, 도자기생산, 가죽가공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특히 질 좋은 가죽제품과, 수산물, 약재들과 우량품종의 말들이 당나라와 일본에 수출되었다. 738년 당나라에 돈가죽 1 000장과 말린문어 100마리를 수출한 사실, 739년에 일본에 범, 곰, 표범가죽과 인삼, 꿀을 수출한 사실, 765년 당나라의 치청번진에 많은 말들을 수출한것은 발해경제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발해는 해동성국의 경제적기초를 이 시기에 마련하였다.(이에 대하여서는 국내외의 연구자들도 공인하는것이다.) 이 시기 발해는 근 반세기이상이나 평화적인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국가제도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봉건사회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였다. 때문에 당시 발해사람들은 문왕을 찬양하면서 그를 고대중국의 전설적인 《3황5제》(三皇五帝)와 견주기도 하고 또 주나라시기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와 문화발전에 《공헌》하여 후세에 알려진 성왕, 강왕에 견주기도 하였다.

발전의 길을 걷던 발해의 경제는 8세기말~9세기초에 이르러 불안정한 국면을 맞이하였다. 오래동안 발해를 통치하던 문왕이 죽고 봉건통치배들속에서 권력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문왕의 집권 말기에 이르러 통치배들속에서 더 많은 권력과 재부를 차지하려는 탐욕이 더욱더 자라났으며 이것은 끝내 문왕의 사망후 표면에 드러났다. 봉건통치배들속에서 권력다툼이 일어나 장자상속으로 이어지던 왕위는 왕의 동생인 대원의(발해 4대왕)에게 넘어갔으나 그는 1년도 못되어 살해되고 그후 문왕의 손자인 대화여가 왕자리에 올랐으나 그 역시 몇달만에 왕자리에서 물러났다. 그후 794-808년에 왕자리에 있는 강왕(대승린)을 제외하고 808-817년에 3명의 왕들이 집권하였는데 그들은 2년, 5년간 집권하고 물러났다. 이것은 793-816년에 발해의 통치층내부에서 왕자리를 둘러싼 권력싸움이 자주 일어났다는것을 시사하여준다. 이러한 정세가 발해의 경제발전에 일련의 부정적 작용을 하였을것은 틀림없을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력사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이룩되는것만큼 그러한 정치정세속에서도 발해의 경제는 자기 발전의 길을 걸었을것으로 보아진다.

발해의 경제는 9세기초부터 그 말기(3단계)에 한층더 발전하였다. 817년 왕자리에 오른 선왕(대인수)은 국가의 중앙집권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에 따라 생산이 늘어났다. 발해의 지배층은 그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착취원천과 대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의 하나로 진행된것이 《해북의 여러 부》에 대한 원정이었으며 이 원정은 발해의 경제를 한층더 발전시킬수 있는 객관적조건을 지어주었다.

《신당서》(권219 렬전144) 발해전에는 대인수(발해 10대 선왕)가 《해북의 여러 부(部)들을 토벌하여 령토를 크게 넓히었다.》라고 써여있다.

주목되는 이 자료는 9세기초부터 말기사이의 발해의 경제발전의 일단을 설명할수 있게 한다. 선왕시기에 진행된 령토의 확장은 경지면적의 확대, 호구와 조세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경지면적의 확대는 알곡생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전제로 되었으며 차지한 지역의 호구에 대한 장악과 지배는 농업은 물론 토목공사와 배무이, 수산업, 광물채취, 대내외상업 등 경제분야에 더 많은 로역대상들을 인입시켜 생산의 가일층 증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조세부과대상들도 증가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을것이다. 그리고 육로와 해상교통망들이 확대되어 필요한 물자들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발해에는 물산이 풍부한 지역들이 더 생겨나고 도처에서 이름난 특산물들이 생산되었다. 《신당서》(권219 렬전144 발해)에서는 발해의 《풍속에 귀하게 여기는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메주,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술빈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숨, 룡주의 비단, 위성의 철, 로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 환도의 추리, 락유의 배》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산물들은 이웃한 당나라에까지 알려진것이였다. 이밖에도 발해에서 생산된 진귀한 짐승가죽과 털제품, 비단과 베를 비롯한 직물제품, 수산물들은 매우 진귀하고 값진것으로 하여 바다 건너 일본에도 널리 알려졌다. 발해가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인민들에 대한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는 여전히 강화되었으며 특히 10세기초에 이르러 봉건통치배들속에서 안일한 풍조와 사치한 생활이 더욱더 만연되어 나라의 경제는 국왕과 봉건지배계급의 치부를 위한 분야로 전락되고 군사력강화에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발해의 경제는 점차적인 발전단계와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정치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또다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였다.

발해인민들에 의하여 창조된 많은 유적, 유물들은 오늘도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발해경제의 발전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동방의 룡성한 나라로 이름을 떨친 발해의 력사 특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경제발전과정을 더 깊이 연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유격장군, 정당성